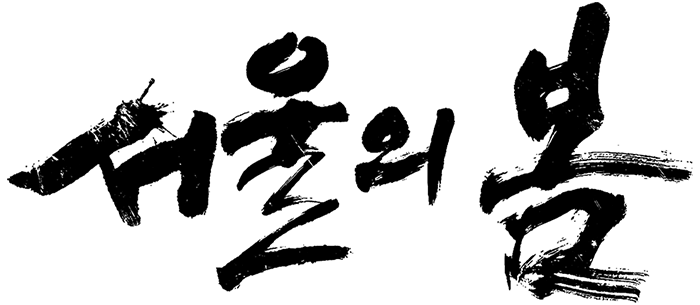
****

**굽혀지지 않는 강한 신념!**

**끝까지 저항한 육군본부 헌병감!**

**김성균 캐릭터 스틸 공개**

영화 <서울의 봄>이 육군본부 헌병감 김준엽을 연기한 김성균의 캐릭터 스틸을 공개했다. [감독: 김성수 | 제공/배급: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| 제작: ㈜하이브미디어코프]

**김성수 감독 “김성균의 성실함과 소화력으로 완성된 캐릭터!”**

**김성균 “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긴박함으로 심장을 뛰게 만든 이야기!”**

**반란군에 끝까지 항전하는 육군본부 헌병감 김준엽으로 분한 김성균,**

**1979.12.12, 그날 밤 상황을 전하는 실감 나는 연기로 몰입감 높인다!**



**<서울의 봄>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.** 매 작품 캐릭터 그 자체에 녹아든 연기로 깊은 인상을 선보인 배우 김성균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반란군에 끝까지 저항하는 육군본부 헌병감 김준엽으로 분했다.

극 중 김성균이 연기한 김준엽 캐릭터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(정우성)과 함께 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장성 중 한 명이다. 공개된 스틸은 반란군에 맞서 홀로 끝까지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김준엽의 강직한 모습을 보여준다. 김성균은 <서울의 봄>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신념과 주장을 굽히지 않는 헌병감 김준엽을 강렬하고 단단하게 그려내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.

김성수 감독은 **“김준엽 캐릭터는 복잡한 분장과 스타일링이 필요했는데, 김성균 배우가 캐릭터의 내적인 면부터 외적인 면까지 잘 소화했다. 현장에서도 원래부터 김준엽이라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성실하게 연기했고, 역시 함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”**라며 김성균 배우에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.

김성균은 **“시나리오를 읽고 심장이 굉장히 뛰었다.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긴박함이 고스란히 잘 느껴졌다”**라고 <서울의 봄>을 선택한 이유를 밝혀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. 이어서 **“감독님께서 그 시절 그 상황에 있었던 캐릭터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, 군인의 느낌보다는 그 상황 속에 던져진 살아있는 연기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”**라며 헌병감 김준엽을 연기한 과정에 대해 전했다.

황정민, 정우성, 이성민, 박해준, 김성균 등 강렬한 연기파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영화 <서울의 봄>은 오는 11월 22일 개봉한다.

**INFORMATION**

제목: 서울의 봄

영제: 12.12: THE DAY

감독: 김성수

출연: 황정민, 정우성, 이성민, 박해준, 김성균 외

제공/배급: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

제작: ㈜하이브미디어코프

러닝타임: 141분

관람등급: 12세 이상 관람가

개봉: 2023년 11월 22일

**영화<서울의 봄>에 대한 문의는**

**앤드크레딧&credit 02-543-19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**